

#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요인과 제도적 환경

민 기\* · 이춘기\*\*

## I.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의 개념

몇 해 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미국의 텍사스주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암치료를 받고 치료회복을 위해 몇 개월을 미국에서 머물렀다. 이회장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은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세계 최고의 암센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의료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의 일부 부유층이 선진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와 달리 선진국의 국민들이 개발도상국가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의 한 여성은 골반이식(hip replacement) 수술을 받기 위해 코스타리카에 있는 병원으로 가고 영국의 젊은이는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인도로, 일본의 여성은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나 태국으로 가는 경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부유층이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유형은 의료고객들이 고비용형 의료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등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찾아가는 유형이다.

이처럼 「선진국 주도형 의료관광」은 의료의 질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이와 달리 미국 등 선진국 국민들이 중남미 국가나 인도, 태국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유형은 「개발도상국 주도형 의료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주도형 의료관광의 특성은 선진국 정도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싼 인건비 등으로 의료비용을 선진국보다 저렴하게 하여 선진국의 의료고객을 유치하는 형태이다.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 모두를 의료관광(medical tourism<sup>1)</sup>)이라고 한다. 최근 의료관광에 대해 많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의료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알선·유인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헬스코리아뉴스 '08.3.7).<sup>2)</sup> 이러한 정책 방향은 신정부가 의료관광 및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신정부의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관광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 사무처 국장,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 사무처 보건복지 담당 사무관

1) 의료관광을 Medical Tourism, Health Tourism, Healthcare Tourism 등의 용어로 혼용 표기하고 있으나, 본 글에서는 Medical Tourism을 사용하고자 한다.

2)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9802> ('08.3.7 헬스코리아뉴스)

이 상당부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부산 L호텔에 소재하는 한 한의원은 일본·중국·러시아의 환자들을 월 50~60명씩 유치하여 침술치료를 하고 있다. 이들 환자는 가족들과 같이 부산에 와서 약 일주일쯤 그곳에 머물며 관광과 쇼핑을 즐기면서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씩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www.knn.co.kr. '07.9.22). 부산의 P호텔 인근에도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6개 병원이 메디컬 리조트를 지향하는 의료관광을 실시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도 의료관광을 시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건강 증진이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고객의 타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관광은 의료(medicine)와 관광(tourism)이 결합된 경제활동이다. 의료와 관광은 수요의 소득 탄력도(income elasticity of demand)가 매우 높은 산업일 뿐만 아니라 노동집약적이고 정보에 의존하는 산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의료산업은 관광산업에 비해 첨단 기술 의존성이 높고 고비용 산업으로 경제적 진입장벽 뿐만 아니라 제도적 진입장벽 또한 매우 높다. 의료관광이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산업이지만, 소비자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의료산업 발전 정도이며 관광은 그 다음 보완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유명 관광지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 의료관광의 목적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sup>3)</sup> 국내에서도 의료관광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 부

분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의료관광을 “환자가 진료, 휴양과 관광활동을 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이 뛰어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진료받기 위해 여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sup>4)</sup> 혹은 “의료서비스, 레저 및 문화활동, 운동과 건강을 포함하며, 몸과 마음의 웰빙(well-being) 추구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관광”<sup>5)</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글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의료관광이 산업화 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의료관광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제도적 환경을 살펴보고 제주도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의료산업을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의료관광 산업발전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의료관광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인 의료관광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주요 산업 중 하나가 되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sup>6)</sup>. 2006년 약 130만 명이 의료관광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시장규모는 미화 약 5억불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싱가폴은 우수한 의료수준과 쇼핑환경을 내세워 '06년 40만 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2012년까지는 연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3) M Z Bookman & R K Bookman. (2007) Medical Tourism in Developing Countries, Palgrave Macmillan, NY, USA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유치 활성화 방안. 서울

5) 김미경·윤세목. (2007). 한국의 의료관광 상품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제31차 한국관광·레저학회 국제학술대회

6) 의료관광 1등 카페([http://cafe.naver.com/mtakore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23](http://cafe.naver.com/mtakore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23))

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는 값싼 의료비를 경쟁력으로 '05년 말 기준 약 45만 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했고, 2010년에는 연 200만 명을 목표로 50억불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또한 골프 관광을 결합한 건강검진 상품 등으로 '06년 23만여 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여 신흥 의료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동남아 국가들이 의료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쇼핑·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문알선기관에 의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레이시아나 태국은 의료관광을 주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나, 이들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외국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또 개발도상국들 중 특히 아시아의 인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는 의료관광이 성공적이나 기타의 개발도상국은 의료관광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 중에서도 어떤 나라는 심장병 등 주요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관광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나라는 성형수술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선택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관광이 발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의료관광의 발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각국이 가지고 있는 의료비용의 경쟁성, 의료인력, 의료산업관련 연구개발비, 각국의

의료산업 관련 규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구비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각국의 의료비용은 의료관광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의료비용이 의료기술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것은 세계화로 인해 각 나라 간 의료기술은 상당 부분 근접해졌으나, 나라 간 의료비용의 편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의료관광에 있어서 의료비용의 편차는 치료분야에 따라 크게 나타나며, 이런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장비와 의사 등 고급인력에 대한 인건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미국인의 경우 의료관광을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비용절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치료분야와 의료관광 선택국가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순수 의료비용<sup>9)</sup>만을 계산할 경우 <표 1>에서와 같이 의료비용의 편차는 최저 15 퍼센트에서 최고 95 퍼센트에 이른다. 예를 들면 심장판막치환술(Heart Valve)의 경우 미국에서는 160,000 달러가 소요되나 인도의 경우는 9,000 달러에 불과하다.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를 갖춘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Heart Bypass 수술비용이 미국의 15 퍼센트에 불과하다. 물론 자국을 떠나 치료를 받을 경우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숙박비, 항공료, 동반자 비용 등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다.

7) Jorge A. A. Vega. (1998). "The Case of the Mexico-United States Border Area" in UNCTAD-WHO Joint Publication, International Trade in Health Service: A Development Perspective. Geneva. UN.

8) Josef Woodman. (2007). "Patient Beyond Borders," A Healthy Travel Publication. N.C. USA.

9) 의료관광의 경우, 순수 의료비용 이외에 항공료, 숙박비, 여행경비, 각종 수수료 등이 추가된다.

〈표 1〉 각 국의 의료비용 비교

치료분야	미국	인도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심장동맥우회로조성술 (Heart Bypass)	\$130,000	\$10,000	\$11,000	\$18,500	\$9,000
심장판막치환술 (Heart Valve Replacement)	\$160,000	\$9,000	\$10,000	\$12,500	\$9,000
외과 혈관성형술 (Angioplasty)	\$57,000	\$11,000	\$13,000	\$13,000	\$11,000
골반이식술 (Hip Replacement)	\$43,000	\$9,000	\$12,000	\$12,000	\$10,000
자궁절제술 (Hysterectomy)	\$20,000	\$3,000	\$4,500	\$6,000	\$3,000
관절치환술 (Knee Replacement)	\$40,000	\$8,500	\$10,000	\$13,000	\$8,000
척추융합술 Spinal Fusion	\$62,000	\$5,500	\$7,000	\$9,000	\$6,000

\* 출처 : Josef Woodman, (2007). "Patient Beyond Borders," A Healthy Travel Publication, N.C. USA p.7.

Woodman(2007)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에 사는 Douglas 씨는 골반이식수술을 해야 했다. 미국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약 55,000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는 부인과 함께 인도 체나이(Chennai, India)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 의료비와 부인과 자신의 항공료, 수술 후 회복을 위해 2주 동안 5성급 해변가 호텔에서의 휴가, 음식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의 합계는 14,000 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들은 자신이 인도에서 왕족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회고하였으며, 미국에서는 고비용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표 1>의 중대한 질병에 대한 치료와 달리 선택적 치료가 많이 일어나는 치과의 경우에도 미국과 기타 국가들 간의 비용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Woodman(2007)은 치과 치료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미국 국민 중 약 일억 이천만 명은 치과보험

(dental insurance)이 없다. 치과보험이 없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Margaret 여사는 치아 한 개를 뽑고(extraction) 임플란트(implant) 두 개와 두개의 치관(crown) 수술을 하는데 약 6,600 달러가 소요된다는 견적을 받았다. 그래서 친구를 통해 코스타리카(Costa Rica)의 Escazu 시에 소재하는 치과병원을 소개 받게 되었다. 미국에서 치과대학 교육을 받은 의사이며, 미국에서와 동일한 의료기구를 사용하는 병원에서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받는데 2,600 달러만이 소요되는 것을 알게 되어 의료관광을 선택하게 되었다. Margaret 여사는 의료비, 항공료, 숙박, 음식값, 기타 여행비용 등을 포함시켜도 미국 치료비의 60 퍼센트로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유럽의 경우도 의료관광은 예외가 아니다. 헝가리 소프론은 인구 5만에 치과 의사가 4,000명이나 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소프론

은 고성(古城)의 도시로 유럽 여행가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나 지금은 인공치아 이식수술(implant)로 더 유명한 도시가 되었다.<sup>10)</sup> 치과 치료를 위해 이 도시를 찾는 의료 관광객은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온 외국인이다. 이들 외국인이 헝가리를 찾는 첫 번째 이유는 싼 의료비용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임플란트를 하려면 치아 1개에 1,000~1,500 유로 정도를 내야 하는데, 소프론에서는 1개에 600~700 유로 수준이다. 10개까지 가능한 패키지 치료를 하면 2,600 유로만 내면 된다. 치과의사는 물론接客 요원도 대부분 유럽 각국에서 공부해 언어소통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소프론의 치과가 알려지기 시작한 건 10년 전이며, 교통과 입지가 좋은 데다 값싸고 서비스도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금세 유럽 전역으로 입소문이 났다. 이웃 오스트리아는 물론 독일, 스위스 등 인근

국가에서도 방문객이 늘었고, 헝가리 각지에서 치과의사가 몰려왔다. 이러한 유명세로 인해 프랑스, 독일 등에선 몇 년 전부터 ‘임플란트 관광’ 상품까지 나왔다. 이것은 치과 치료와 헝가리 관광을 묶은 ‘퓨전 상품’으로, 소프론의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오후에 인근 고성들을 둘러보고, 진료가 없는 날은 부다페스트까지 가서 박물관 관람과 온천욕 등을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한 여행사가 최근 내놓은 7박8일간의 ‘임플란트 관광’에 드는 비용은 총 3,150 유로인데, 이 비용은 프랑스에서 치료만 받는 데 드는 금액의 절반에 불과하다.

<표 2>는 치과치료의 분야별 국가 간의 의료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단순하고 치료 범위가 작을수록 자국에서 치료하는 것이 유리하나, 치료 범위가 넓어질수록 의료관광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비용의 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각 국의 치과 치료 비용

치료분야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	태국
치아이식 (Implant)	\$2,400	\$1,500	\$1,650	\$2,000	\$1,600
치관 (Crowns)	\$800	\$375	\$400	\$800	\$270
치아보철 (Porcelain Veneers)	\$800	\$120	\$160	\$300	\$240
의치 (Dentures)	\$1,600	\$1,000	\$1,100	\$1,700	\$900
발치 (Surgical Extractions)	\$260	\$120	\$120	\$250	\$120
근관 (Root Canals)	\$750	\$260	\$280	\$400	\$110

\* 출처 : Josef Woodman, (2007). "Patient Beyond Borders," A Healthy Travel Publication, N.C. USA, p.8.

10) 중앙일보 '07.4.25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ID=2705861>)



의료관광객이 의료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로 문화적 유사성(cultural affinity)을 들고 있다<sup>11)</sup>. 문화적 유사성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의료관광 대상국의 문화가 상호 비슷하거나 친근한 정도를 말한다. 언어, 종교, 문화, 역사의 동질성 등은 문화적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진이 환자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미국 등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싱가포르에서 중국어나 영어를 사용하는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을 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받는다. 식민지 통치로 문화적 친근성이 있는 영국인은 인도를, 미국인은 필리핀을, 스페인은 쿠바를, 종교적 동질성이 있는 사우디인은 요르단을 의료관광 목적지로 선호한다. 특히 종교는 문화적 유사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요르단은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오는 의료관광객을 유치하였다. 최근에는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해외의 이슬람교들의 의료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종교는 일상생활 속의 종교행사, 기도, 음식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요인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태국의 「Bumrungrad Hospital」은 중동지역의 의료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이 병원은 아랍어 구사자, 종교적으로 허용된 음식, 기도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방콕의 「International Medical Centre」에서는 일본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말레이시아는 서남아시아 의료관광객을 위해 「Feel at Home Program」을 마련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의료관광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는 여행에 걸리는 시간 혹은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이다. 이러한 근접성(proximity, distance)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입지요인이다. Chanda(2001)<sup>12)</sup>는 나이가 많거나 중대한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료관광객은 자국의 인접 국가 중에서 의료관광지를 선택하는 점을 밝혔다. 예를 들면, 인도에 오는 의료관광객 중 상당수는 인접국가인 방글라데시, 모리셔스(Mauritius), 네팔, 스리랑카 국민들로 조사되었다. 멕시코나 코스타리카에 온 의료관광객 중 상당수가 미국과 캐나다, 중국의 경우는 타이완, 홍콩 등에서 온 사례에서도 인접성의 중요함은 잘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당일 치료가 가능하며 의료비 절감도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관광객이 근거리 여행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인도의 「Escorts Heart Institute」설립자인 Naresh Trehan은 인도의 의료도시(Medicity)를 모델로 하여 미국에서 가까운 바하마(Bahamas)에 대형 의료기관 설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항공요금이 낮아지는 추세와 마일리지의 사용 등을 통해 의료관광객들이 이전보다 더 먼 거리에 위치한 나라를 의료관광 목적지로 선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태국은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료관광 목적지가 되고 있으며, 인도「Escorts Heart Institute」의 외국

11) Ivy Teh & Chu, Calvin. (2005). "Supplementing Growth with Medical Tourism," Asia Pacific Biotech News 9, No. 8.

12) Rupa Chanda. (2001). "Trade in Health Services,"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환자 약 40 퍼센트가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에서 오며, Apollo Hospital의 환자들의 상당수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3)</sup> 의료관광객이 기꺼이 장거리 여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의료기술의 우월성, 이국적인 휴가 환경, 저렴한 비용 등이 장거리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상쇄하고 남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의 요인 이외에도 특정분야의 전문성 (specialization) 과 의료기관의 명성 (reputation) 등도 특정국가가 의료관광지로 선호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인도의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이용되지 않은 골반이식수술 기법, 태국은 성전환과 성형수술, 쿠바의 Clini Cira Garcia에서는 야맹증 치료, 요르단은 최첨단 기법의 암치료, 아르헨티나의 멘도사(Mendoza) 시는 안과치료, 헝가리 소프론 시는 치과치료 등으로 전문화되어 있어 국내외 의료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또, 의료관광객들은 선택대상에 있는 의료기관의 수술 성공률과 수술 후 부작용 등에 대해 관심이 높다. 인도 델리(Delhi) 와 파리다반(Faridabad)에 있는 「Escorts Heart Institute」와 「Research Center」에서는 매년 15,000건의 심장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술 중 환자의 사망률은 미국의 주요 병원의 사망률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중국 북경에 소재한 Chaoyang Hospital이 했던 ‘신경세포 재생을 위한 태아세포 이식수술’에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던 적이 있었다(Bookman & Bookman, 2007).

지금까지 살펴본 높은 의료수준과 서비스

등이 고려된 의료비용, 문화적 동질성, 지리적 근접성,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명성 등은 의료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유인요인(pull factor)들이다. 이러한 유인요인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의료관광을 산업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료관광에 소요되는 인적자원의 확보이다. 의료산업과 달리 의료관광산업은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산업이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약사, 연구원, 의료기사 등 고급인력과 관광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단순인력 등이 모두 필요한 산업이다. 인력을 충원하는 일차적인 구조는 자국의 교육제도를 이용하여 배출된 인적자원에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의료인력은 다른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의료기술 변화의 속도는 어떤 산업보다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아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Stalker(2000)<sup>14)</sup>는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노동의 이동성이 이전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각 국은 부족한 인적자원을 다른 나라의 인력을 활용하여 보충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의료관광산업은 의사, 간호사, 고급호텔·리조트 관리자 등

13) Finacial Times, July 2, 2003

14) Peter Stalker. (2000). "Worker Without Frontiers: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Lynne Rienner. USA.

과 같이 첨단기술, 다국어 구사 능력 등을 가진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한편, 호텔 청소원, 객실담당직원, 렌트카 청소 등 단순직종에 종사하는 인력 등이 동시에 필요하다. 선진국 주도형 의료관광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내 전체 의사 중 25 퍼센트를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을 이민자로 받아들여 충원하고 있다. 외국 의사 중 약 60 퍼센트는 인도,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 태국 등 의료관광산업이 앞선 나라에서도 필리핀 간호사, 관광산업 종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가 싸고 영어를 구사하고 있는 필리핀인들은 단순직종에서도 인기가 높다.<sup>15)</sup>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인적자원 양성제도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적극적인 이민 수용정책을 통해 필요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태국 정부는 의료관광을 포함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5년 동안 410억 달러(태국 국내 총생산의 26퍼센트)를 투자하여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요르단 정부도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인프라 건설을 시행중에 있다.<sup>16)</sup> 이들 국가가 발표한 인프라에는 전기,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항공수송, 해양수송 등 교통 뿐만 아니라 통신, 금융제도, 보건, 교육 제도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인프라 중 제주도에 시사점을 주는 것은 항

공교통망 확충과 금융제도 관련 규제의 완화이다. 특히 항공교통은 사람과 물품의 이동,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할 인프라이다. 두 시간 이내의 비행거리에 인구 5백만 이상의 도시 18개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자랑하고 있는 제주도지만, 외국 도시에서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인접국가의 도시에서 제주를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미국 LA에서 인천을 방문하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금융제도 또한 해외에서 온 의료관광객에게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자국에 있는 은행계좌의 돈을 의료관광지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않았던 큰 비용이 필요하게 된 경우 방문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신용시장(credit market)의 발달도 필요하다. 금융시장의 미발달은 관광산업과 국가간 노동이동에도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7)</sup>

정부정책 중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영리병원에 대한 허용 여부이다.<sup>18)</sup> 영리병원(For Profit Hospital)은 투자자가 실제 주인인 병원으로서 병원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자격 제한이 없으며, 주식거래의 제한이 없고 주식회사처럼 병원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도 있으며, 운영상 발생하는 세금납부 후 이익에 대해 주주

15) 필리핀의「Mabuhay Host Training Program」은 의료관광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16) Economist, December 10, 2005. p. 73

17) Joseph Stiglitz & Andrew Charlton. (2006). Fair Trade for All. Oxford University Press.

18)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단,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외국영리병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의료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영리병원은 Columbia/HCA, Tenent 와 HealthSouth인데, 이들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이유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재활치료, 성형수술, 심장병 치료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수익이 낮은 응급의료분야(emergency medicine)는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론자들의 의견도 있다.<sup>19)</sup>

의료관광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리병원은 법인(영리 및 비영리 포함), 자연인, 외국인, 외국법인 등 누구든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유 및 경영에 대해 정부의 간섭이 없다. 다만, 싱가폴은 주식거래 규정에 의해 법인의 상장주식을 일반 투자자가 10 퍼센트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지분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Raffles 병원과 Parkway 그룹 병원의 주식 중 각각 36.5 퍼센트와 56.0 퍼센트를 일반 주주가 소유하고 있다.<sup>20)</sup>

싱가폴의 영리병원에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진료를 하고 있다.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내국인 환자의 경우 직장단위로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 민간보험에 단체로 가입하거나 직접 영리병원과 일정기간 단위로 계약을 맺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정부의 간여 없이 병원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간여를 하지 않는 대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의료수가

를 보건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상호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Raffles 병원은 일본인 의료관광객을 위해 일본인 클리닉 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을 모두 일본인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곳 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들을 위해 항공권 예약, 필요시 비자 발급, 관광 일정 등을 조정해 주고 있다.

태국의 경우 영리병원 및 영리의료기관의 소유자는 태국국민 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설립에 필요한 자본은 국내외로부터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외국 자본은 전체 자본의 49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Newsweek지가 세계 10대 병원 중 하나로 선정한 방콕의 Bumrungrad 병원은 1989년 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주주구성은 Bangkok Bank와 Bangkok Insurance가 최대 주주이며, 일반주주와 외국인 보유지분은 5 퍼센트 수준이다. Bumrungrad 병원은 200 병상 규모로 1980년 지역주민을 위한 병원으로 개원 후, 1997년 550 병상 규모로 확대하였으나 이어 닥친 외환위기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Bumrungrad 병원은 병원재정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해외환자 유치 마케팅을 시작한 이후 약 450,000명을 유치하는 세계적인 병원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전체 진료환자 중 약 45%가 외국환자이며 이중 미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간섭없이 책정되는 의료비는 공공병원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미국 등 외국의료

19) [http://en.wikipedia.org/wiki/For-profit\\_hospital](http://en.wikipedia.org/wiki/For-profit_hospital)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2006).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경쟁국의 의료제도 및 지원실태조사

기관의 의료비와 비교하였을 경우 1/8 수준이다. 인도의 경우도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개인, 민간법인, 외국법인 등 소유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 현재 인도 전역에는 38개의 민간영리병원이 운영 중에 있다.

영리의료기관의 허용 여부와 함께 의료산업관련 정부규제는 외국의료인의 국내에서의 의료행위 허용여부, 의료광고허용, 공공의료보험 적용여부 등이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의사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시행하는 별도의 시험에 통과하는 경우에만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한국 등 몇 개 국가의 의사면허만을 인정해 주고 있다.<sup>21)</sup> 의료광고의 경우, 싱가포르 민간병원 및 의료기관법(Private Hospitals & Medical Clinics Act)에 의해 의료기관의 상세 정보, 입원실의 등급별 수용인원, 전문서비스, 특수시설 등에 대한 광고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병원과의 비교 광고, 시설과 서비스에서 유일하다거나 우수함을 주장하는 과장 광고 및 판매 관측 등에 대한 의료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 IV. 결론 : 제주 의료관광산업 발전 전략

제주도는 의료산업을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제도들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외국의료기관 설립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였으며, 외국의료기관 설립

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규정하여 영리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었다. 그리고 법인의 종류와 요건 등에 관해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특별법 제192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는 외국의료기관에 국내투자자가 50 퍼센트 미만 범위 내의 투자를 허용하여 국내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의료기관에서 내국인 진료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발전이 의료관광산업으로 실행화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와 정책지원 제도를 도입·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의료산업 경쟁국에 비해 의료비용에 대한 상대적 저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상대적 저렴성은 의료관광객이 자국에서 지불해야하는 의료비용, 또는 제주도가 아닌 우리나라의 서울 등 다른 지역이나 경쟁국에서 소요되는 의료비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포함된 것이다. 이 주관적 만족도는 의료관광객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정서적 유사성 등 심리적 거리(psychologic distance)와 여행시 소요되는 물리적 거리(physical distance) 등이 고려된 것이다. 제주도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 놓여 있어, 일본인 의료관광객 입장에서 볼 때 제주도의 의료비용과 관광비용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제주도를 의료관광 목적지로 선호할 수 있다. 일본인과 달리, 소득수준이 높은 일부 중국인들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의료비용 및 관광비용을 기꺼이

21) 한국 의사면허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특정 의과대학 출신자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2006).

지불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기술을 선호하여 한국을 의료관광지 목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지난해 한류 열풍에 의해 한국식 성형을 선호한 중국인이 약 2,000명이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중국인이 한국 의료관광시장에 향후 큰 고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을 찾는 일본인 의료관광객은 한국이 미용성형, 라식, 얼굴성형, 한방재활, 치아미백, 임플란트, 디스크수술 등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지불능력이 있는 중국인 60 퍼센트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성형, 척추, 치아, 안과 등의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제주도는 이와 같은 분야의 의료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의료기술 수준이 높은 병원을 제주도로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병원이 제주도로 이전하거나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영리병원 허용 등과 같은 육지부와 다른 차별적 의료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료관광산업의 기반인 의료산업의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의료관광객들의 문화적 유사성을 증진하기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이 소통될 수 있는 환경과 이들이 선호하는 음식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22)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80900>(매일경제, 2008. 2. 14)